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3 MARCH
Vol.242

봄이 왔나봄

봄처럼 당신도 따스하기를!

삼성 KPMG



웃음꽃이 활짝 필 3월,

봄의 시작!

따스한 햇살이 기분 좋은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새싹이 움트고, 봄꽃들이 망울을 터뜨리며
화사하게 꽃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인지, 로빈 윌리엄스는 “봄은 자연의 언어로
‘파티하자’라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뒤로하고,
따뜻한 봄, 웃음꽃 활짝 피는
3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3세대 신약,
디지털 테라퓨틱스 시대의 개막

06 Market Reader

넷제로(Net Zero)로 가는 길,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에너지 믹스

08 Team Story

정보보호 공시 신뢰성 높이는 업계 No.1
정보보호 공시제도 TF팀

10 Client+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2차전지 초정밀부품제조기업,
(주)에이치와이티씨

12 Expert's Advice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원년 대응 방안은?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16 People First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 선물 이벤트 진행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20 삼성동호회자랑

테린이도 대환영!
올해로 10주년 맞이한 '테니스 동호회'

22 삼성인톡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삼성인의 리추얼 라이프는?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AI 대혁명

26 心 Care

나에 대한 비밀스러운 애정,
내현적 자기에

28 Samjong News

'2023 KPMG 아이디어톤 개최' 외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 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3세대 신약, 디지털 테라퓨틱스 시대의 개막

2023년 2월, 국내 1호 '디지털 테라퓨틱스(디지털 치료제)'가 탄생하며 새로운 의료 기술의 시대가 열렸다. 에임메드가 개발한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솜즈(Somzz)가 식약처의 첫 품목 허가를 받은 것이다. 소프트웨어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관리하는 세상이 이제 막 도래한 시점에, 이번 호에서는 국내외 디지털 치료제의 시장 현황과 투자 트렌드를 살펴보고 개발사와 제약사·병원,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디지털 치료제 성장세에 주목한 국내외 투자 트렌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빠르게 증가한 가운데,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 및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와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에 따른 질병의 예방·관리 및 연속 치료에 대한 니즈가 이어지며 디지털 치료제의 성장이 가속화됐다.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은 2019년 29억 달러에서 연평균 20.5% 성장해 2025년 89억 달러의 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성장세에 해외에서는 노바티스(Novartis), 오츠카제약(Otsuka),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 등 글로벌 빅파마를 중심으로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에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 전문기업 등 유관기관의 디지털 치료제 M&A 시장 진출,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한 개발사 성장 지원과 같은 투자 트렌드도 관찰된다.

그럼 국내 시장은 어떨까? 국내 디지털 치료제 시장 역시 2019년부터 연평균 27.2%의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 4억 1,517만 달러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고 성장이 예측되는 시장이다. 글로벌 빅파마 대비 다소 뒤늦기는 했으나, SK바이오팜,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사도 2020년 이후 디지털 치료제에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시장에서는 대학병원과 손잡은 통신사의 시장 진출, 전통 바이오 시장에만 주목하던 PE·VC의 관심 확대 등이 주요 투자 트렌드로 나타난다.

국내 개발사, 제약사·병원 및 정부가 검토해야 할 미래 전략은?

시장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첫 디지털 치료제의 허가가 이뤄진 만큼 국내 개발사나 제약사·병원, 정부는 미래 전략을 검토해야 할 시기이다. 우선 개발사는 개발 분야 다각화, 원천기술 확보로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개발 목적,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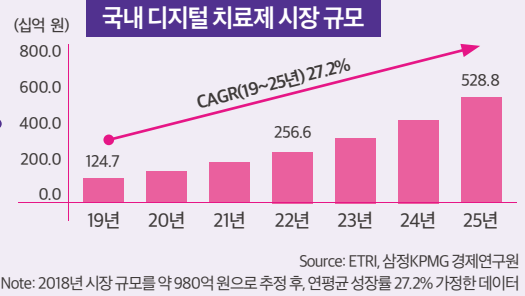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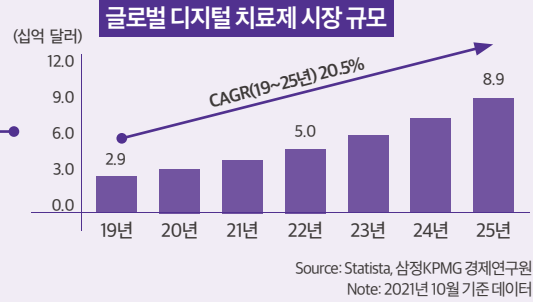
모델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약사는 기존 제약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해 미래 경쟁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치료제 개발사에 전략적 지원 투자를 통해 향후 영업·마케팅에서의 우선권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아울러 병원은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데 힘써야 하는데, 디지털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고 사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으로 신기술 도입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신약 패러다임을 바꿀 3세대 치료제로 주목받는 디지털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실효성 높은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디지털 치료제라는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적합한 보험 수가체계를 서둘러 확립해야 할 것이다.

DIGITAL THERAPEUTICS

국내외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 및 주체별 대응 전략



주체별 대응 전략



개발 분야 다각화 및 원천기술 확보로 경쟁력 강화



투자·공동 연구로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통해 산업 리딩



디지털 치료제 기술 적극 도입,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 선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조속히 마련

CONTACT US

헬스케어 산업 리더
박경수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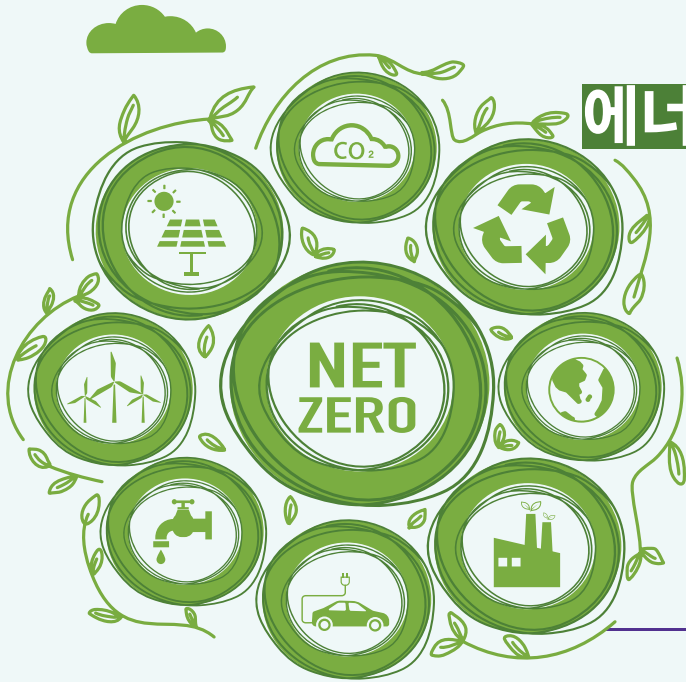
Tel. 02-2112-6710
E-mail. kyungsoopark@kr.kpmg.com

경제연구원 전혜린 선임연구원

Tel. 02-2112-7976
E-mail. haerinjeon@kr.kpmg.com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3세대 신약 디지털 치료제의 투자 동향과 미래 전략'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제로(Net Zero)로 가는 길,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에너지 믹스

2021년 글로벌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5.4% 반등하여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하면서 넷제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징검다리 에너지원으로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책과 규제, 가격, 기술, 인프라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구체적인 보급 시기와 속도가 지역별로 달라지며 인류가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믹스(Energy Mix)와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러우 전쟁이 주는 메시지, 에너지 믹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상한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친환경성'과 '에너지 경제성'에 더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단순히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가격으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쟁으로 인해 절실했던 에너지 자립은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을 더욱 견인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까지 감안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믹스는 그간 논의되어온 흐름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무조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만을 외쳤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경제성을 만족하면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저 발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왜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중요한지 ▲발전 ▲수송 ▲산업(수소 생산) 부문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자.

넷제로 이행과정에서 징검다리로서 천연가스의 역할

탄소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발전(40%)이기 때문에 넷제로를 위한 최우선 순위는 석탄 발전의 축소다. 따라서 기저 발전원으로서 활용성을 갖는 천연가스는 에너지 전환의 주요한 축이 된다. 연소 시 석탄 대비 40%, 석유 대비 20%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천연가스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CCUS)과 결합하면 저탄소 에너지 공급원이 된다. 한편, 천연가스는 수송 부문에서 LNG발전 친환경차, LNG연료 화물차 등 육상뿐 아니라 LNG추진

선 등 해상까지도 활용성이 다양하다. 또한,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의 입지를 확대하는 필수 조건인 수소 생산의 주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2030년 이후에는 단독 활용뿐 아니라 수소와 같은 저탄소 연료를 확산시키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천연가스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더욱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에 이르기까지 CCUS 등 발전된 청정 신기술과의 결합도 필수적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천연가스의 절대적 소비량은 2050년에 이르면 2030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 것이나, 청정 신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만이 전체 가스 공급 중 절반에 가까운 양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

원자력은 값싼 국내 발전가격과 낮은 탄소배출량으로 발전 부문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원자력의 국내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53원/kWh로 발전원 중 가장 낮고, 탄소 발생량은 태

양광 및 풍력과 유사한 수준이다. IEA에 따르면 글로벌 원자력 발전은 2030년까지 20년 전 대비 21.6%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그 이후에는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2030년까지는 기존 대형원전의 보수 및 신규설비 증설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차세대 원전의 상용화가 예상되는 2030년 이후에는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한 분산전원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급격히 확산될 예정이다.

특히, 대형원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은 대형원전 대비 표준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에 유리한 가운데 확대된 공급망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차세대 원자로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이 수송과 수소생산이다. SMR은 앞으로 선박, 무인잠수정 등 해상에서부터 우주탐사선, 핵열추진로켓 등 우주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수소 생산에도 활용이 기대되는데 원자력을 이용하면 그린 수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새로운 에너지 믹스에서 기업의 대응 전략

이렇게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먼저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속 핵심 원재료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한다.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큰 축 중 하나는 에너지 공급의 가격 안정성이며, 가격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재료 조달의 안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장기 공급계약 및 공급선 다각화로 공급 리스크를 관리하거나 업스트림에 대한 직접 진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기보유한 핵심역량을 활용하여 신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하는 것이 중요해진 가운데 결국 신시장 선점에서의 핵심은 신기술로 지목된다. 아직 최적의 모델이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경제성을 입증하여 살아남은 기술만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

새로운 에너지 믹스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역할



천연가스	[발전] '30년 국내 목표: LNG 발전비중 22.9%	[발전]
	· 석탄발전소의 LNG 가스터빈 전환 (노후 석탄발전소 중 28기 LNG 전환) · LNG 열병합발전 확대하여 기저발전화	· LNG 발전과 CCUS 결합 · LNG와 재생에너지 결합한 분산전원
	[수송] · LNG 발전 친환경차(승용차) · LNG 연료 대형화물차(상용차)	[수송] · LNG 발전 친환경차(승용차) · LNG 연료 대형화물차(상용차) · LNG추진선
[산업/수소 생산] · 천연가스를 증기개질하여 생산하는 그레이수소	[산업/수소 생산] · 천연가스 증기개질 후 탄소 포집한 블루수소 · 천연가스를 고온반응기로 열분해한 청록수소	
원자력	[발전] '30년 국내 목표: 원자력 발전비중 32.4%	[발전]
	· 국내의 대형원전 보수 · 만료원전의 계속 운전 · 신규 대형원전 건설(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	· SMR 등 차세대 원전의 상용화 · 차세대 원전과 재생에너지 연계한 분산전원
	[수송] · 원자력 동력의 항공모함 · 원전 동력의 우주탐사선 · 핵열추진로켓	[수송] · 차세대 원자력 추진선 · 차세대 원전 활용 무인잠수정 · MMR** 등 차세대 원전 동력의 우주탐사선
[산업/수소 생산] · 원자로의 전기에 저온수전해를 가해 생산하는 핑크 수소	[산업/수소 생산] · 원자로의 고열과 전기에 고온수전해를 가해 생산하는 퍼플 수소	

Note: *NDC(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MMR(Micro Modular Reactor, 초소형모듈원자로)

다. 따라서 해외 선도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 특허 선점 등 신기술 확보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탄소배출에 대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당장에 처한 현실이지만, 신재생 에너지 상용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기회로 삼기를 기대한다.

CONTACT US

제조산업본부
이경석 전무
Tel. 02-2112-0564
E-mail. kyungsuklee@kr.kpmg.com

경제연구원 임이슬 책임연구원
Tel. 02-2112-3918
E-mail. yeom@kr.kpmg.com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넷제로 (Net Zero)로 가는 길, 에너지 안보와 새로운 에너지 믹스'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공시 신뢰성 높이는 업계 No.1 정보보호 공시제도 TF팀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 및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됐으며,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 제출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정보보호 공시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번 호에서는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삼성KPMG의 '정보보호 공시제도 TF팀'을 만나본다.



사이버 사고 증가에 따라 정보보호 요구 강도 커져,

투명하고 적절한 정보보호 공시 필요해

매년 증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랜섬웨어 등 기업을 노린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보보호 관련 정부의 규제와 요구사항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자의 알권리 확보 및 민간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매년 6월 말까지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통신사업자, 상급병원,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기업들은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보안에 대한 투자와 성과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유사 업종 간 공시자료 비교를 통한 보안 예산 및 조직 규모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도 있다.

특히 투자자와 일반 대중들은 정보보호 공시 자료 조회를 통해 해당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점점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의 위협에 잘 대처할 역량이 있는지를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기업의 CFO(최고재무책임자)와 CISO(정보보호책임자)는 투명하고 적절한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조직의 정보보호 역량을 공개하고, 지속가능한 정보보호 환경 유지를 위한 기본 지표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전문 자문 그룹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이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내 Top 레벨 보안 컨설팅 역량 갖춘 정보보호 공시제도 전담팀

삼정KPMG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안 자문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가 70명이 연간 100여 개의 보안 컨설

팅 수행을 통해 고객사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충분한 이해력은 물론 각 기업들의 현실적인 보안 대책을 제공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보보호 공시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고품질의 안정적인 정보보호 공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공시 대상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전문 인력 현황, 정보보호 인증 현황 및 이용자 정보보호 활동 내역을 조사하고 공시요건에 맞추어 표준화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 공시 사전점검 확인서 발급'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 공시 대상 기업이 회계법인 또는 IT 감리법인에게 공시 내용에 대한 사전점검 확인을 받을 경우, 향후 정부로부터의 사후감사를 면제해 준다는 절차이다. 삼정 KPMG는 국내 대형 회계법인 중에서 최초로 이 사전점검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대상기업이 번거로운 사후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 가이드라인 수립 및 125개 기업 공시 이행(2021년 기준)을 지원해왔으며 유통, 제조, 테크, 금융 기업 대상 정보보호 및 개

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대응 및 연간 지원을 수행해온 경험을 갖춘 베테랑들이다.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경영 리스크 감소 기여할 것

정보보호 공시에 포함된 자료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로서 조직의 정보보호 운영 및 투자 계획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TF팀은 회계법인 고유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철저하게 공시 자료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ESG 및 GRC 관련 제도에서도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포함된 만큼, 명확하고 확장된 내용의 정보보호 공시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경영 리스크 감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TF팀 서비스

- ① 공시 컨설팅 및 사전점검 확인서 작성 지원
- ② 공시 항목별 점검 내용과 규정 미준수 자료 확인
- ③ 컨설팅 및 사전점검 실의 후 사전점검확인서(공시용, 조서) 작성

정보보호 공시제도 TF팀을 소개한다면?



김민수 전무
(팀 리더)
mkim9
@kr.kpmg.com

삼정KPMG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안 컨설팅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의 보안 컨설팅 경험은 물론, KPMG 글로벌 사이버 보안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신규 보안 위협과 대비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들의 정보보호 공시 관련해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영대 상무
youngdaiko
@kr.kpmg.com

한국 기업들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감독 규정 등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규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삼정KPMG는 통합된 보안점검 기준의 적용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대책 제시를 통해 고객사 보안 조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효원 컨설턴트
hyowonkim
@kr.kpmg.com

디지털 신기술의 폭발적 성장과 도입에 따른 사이버 보안 피해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정보보호 관련한 정부의 규제와 요구가 커진 상황입니다. 국내 최고의 해킹 및 기술 보안 전문가, 그리고 회계사로 구성된 정보보호 공시제도 TF팀은 기업들에 고품질의 정보보호 공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2차전지 초정밀부품제조기업, (주)에이치와이티씨

2차전지 초정밀부품제조기업 (주)에이치와이티씨는 2000년 한영정공으로 시작해, 2005년 현재 사명인 (주)에이치와이티씨로 변경했으며, 이후 2022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고의 기술력과 도전정신으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주)에이치와이티씨(HYTC)를 소개해본다.



기업회생 위기를 넘어!

2차전지 초정밀부품 집중하며 고성장

(주)에이치와이티씨는 2차전지 제조 공정 중 전극 제조 공정, 조립공정, 활성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의 다양한 부품을 제조, 공급 중이다. 과거에는 2차전지 정밀 부품 외에도 공조 튜브 압출 금형인 PFC 금형과 LED용 프레스 및 사출금형 등을 주력해왔다. 특히, 2012년에는 PFC 금형 기술 기반의 공조 튜브 제품 제작을 위한 공장을 청주에 직접 건설해 사업의 확

장을 도모했다. 하지만, PFC 튜브의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PFC 금형의 고객사들이 경쟁자로 전환됨에 따라 영업 환경이 악화됐다. 아울러 LED 산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시장의 축소가 이어짐에 따라 2016년 10월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회생절차 시 청주 공장의 매각과 함께 공조 튜브 압출 사업을 중단했고, 공장 매각대금을 통해 회생 채무 상당 부분을 상환해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년 7월에

기업회생을 조기 종결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주)에이치와이티씨는 기업회생 종결 이후 2차전지 부품 시장에 집중하게 됐다. 2016년부터 각국이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발표하면서 전 자동차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2차전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전방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2차전지 장비에 대한 부품 수요 또한 증가하면서 2017년 이후 매년 매출 성

장을 이루고 있다. 다수의 제품 중 전극 커터는 기존 가공방법 개선을 통해 고객사의 획기적인 불량률 감소에 도움을 주었으며, 권심류의 경우 기존 제품의 형상을 수정해 품질 개선을 이뤄냈다. 이런 혁신 활동들은 대량 수주로 이어졌으며, 안정적인 품질과 짧은 납기 대응으로 고객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객사의 제조 수율 향상을 위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다.

한편, (주)에이치와이티씨는 신제품 개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2차전지를 제조하는 노칭 장비에 사용하는 노칭 금형에서, Over-Hual 시간 및 비용을 줄여 고객사 사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새로운 TYPE의 노칭 금형을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장 신설도 고려 중이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도약! 2차전지 글로벌 시장 선도할 것

(주)에이치와이티씨는 해외 법인 설립으로, 고객사의 해외 투자 확대 및 시장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글로벌 사업을 위한 첫 발판으로 중국 남경에 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2020년 2월에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2022년 7월에는 미국 오하이오주에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법인의 매출이 확대됨에 따라, 현지의 부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편의성을 위하여 2022년 1월 신규 공장부지 및 건물을 취득했으며, 기존 대비 향상된 생산능력을 구축했다. 추후 헝가리 법인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의 테네시, 조지아 등에도 추가적인 법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급변하고 있는 2차전지 시장에 해외 각 거점인 중국, 유럽, 미국 법인을 운영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숙련된 전문가들과 함께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

(주)에이치와이티씨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밀가공 장비와 이를 운용하는 다수의 숙련된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정밀가공 장비의 경우 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제품 가공을 위한 프로그램의 설계 능력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제품의 생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1명의 정밀가공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는 5~7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주)에이치와이티씨 생산부서 팀장급 인력은 모두 10년 이상 근속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장비 운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주)에이치와이티씨는 매년 젊고 우수한 인재 채용의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네트워킹

HYTC 글로벌 거점 구축 완료 ▶ Global 영업 고객사 추가 확대 ▶ 성장 네트워크 구축

한국 본사
(경기도 군포)
공정별 주요제품 생산

 중국 남경 법인 위치: 중국 남경 주요 업무: 2차전지 부품 가공	 폴란드 법인 위치: 폴란드 브로츠와프 주요 업무: 2차전지 부품 가공	 미국 법인 위치: 미국 오하이오주 주요 업무: 2차전지 부품 가공
--	--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원년 대응 방안은?

지난해 12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어 12월 18일에는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 ETS) 개정안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최종법안 발효 및 세부 시행법안 발표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있지만 최종법안 내용은 이번 합의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CBAM 도입에 대한 준비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CBAM 시행 원년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해왔다.



Q1

CBAM 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CBAM이란 EU 역내에 물품을 수출할 때 수출국의 탄소 비용을 고려해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원칙적으로 EU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최초 입법안(2021년 7월)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개정안(2021년 12월)의 내용 일부가 반영됐습니다. 집행위 입법안과 비교해 다른 점은 대상 품목이 기존 입법안의 5개 품목에 수소 및 특정 원·부재료, 스크류·볼트 등 일부 철강 후방제품이 포함되고 배출범위가 직접배출량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 하의 간접배출까지 적용되는 점입니다. 도입 시기는 2023년 상반기(1월)에서 2023년 하반기(10월)로 늦춰졌고, 특히 EU ETS 개정안과 연동된 무상할당의 점진적 폐지 계획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9년에 걸쳐 무상할당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Q2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CBAM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 규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무결성, 합리성, 추적 가능성, 정합성의 측면을 모

두 충족할 수 있는 총 5단계에 걸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 제품 생산 전 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 측정, 추적 및 집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재료의 생산 및 투입량까지 고려한 제품 생산의 전 주기에 걸친 탄소배출량 집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명성, 무결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규제 허용범위 내 원재료 입고 시점부터 완제품 생산까지의 탄소배출 공정을 파악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품 단위당 탄소배출량을 배부할 수 있는 기준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셋째, 제품 자체명세서 형태로의 탄소배출 데이터 구조화입니다. 제품의 자체명세서란 모든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상위 품목, 부품, 원재료 등의 사용량, 자체들의 상관관계 등을 목록화한 문서이며, 이러한 형태로 제품 탄소배출 데이터의 구조화를 통해 생산에 사용된 각 자재의 수량, 금액, 탄소배출량 등을 관리함으로써 추적 가능성 및 실사 대응력 제고가 가능해집니다.

넷째, 공급망 관리를 통한 탄소배출 투명성 확보입니다. 탄소배출량 보고 및 감축을 위해 제품의 가치사슬 상에 있는 공급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선제적인 공급기업의 탄소배출량 관리의 추

적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 전담 대응팀을 토대로 한 무결성 및 정합성 확보입니다. 탄소배출량 관리를 위해 데이터 및 증빙서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품별 가치사슬의 추적, 온실가스배출량 산출, 검증 및 소명 등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환경규제 대응 전담팀을 사전에 구축함으로써 무결성 및 정합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CBAM 운영 방안이 입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 기업들은 2023년 10월부터 2026년까지(예상) 과도기 동안 대상 수출 제품에 대해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부터** 올해 9월까지 EU 수출총량, 수출제품 톤당 총 내재 온실가스 직접배출량, 내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수출제품 톤당 총 온실가스 간접배출량, 원산지국에서 지불한 탄소 가격 등을 추적 및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SCG
박원 상우

Tel. 02-2112-0823
E-mail.
wpark@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1월 19일, 2월 2일 게재된 한국경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원년 대응책 1,2'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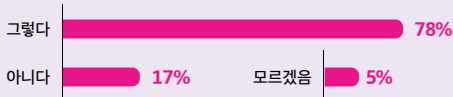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기술의 발달과 혁신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망라하는 확장현실 기술은 물론, 초거대 인공지능(AI) 챗봇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불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신기술로 탄생한 새로운 용어와 자동차 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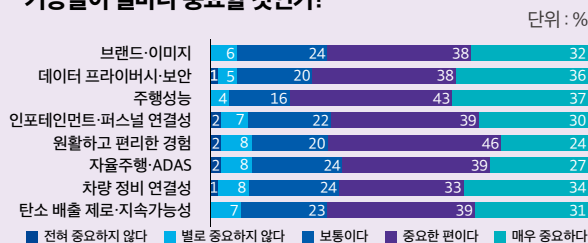
글로벌 자동차 기업 경영진 78%, 2030년까지 대다수 차량 온라인 판매 예측

KPMG는 전 세계 30개국 915명의 자동차 및 관련 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동차 기업 경영진의 78%는 2030년까지 대부분의 차량이 온라인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경영진의 37%는 향후 5년간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결정에 주행성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꼽았다. 한편, 브랜드·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2%로, 지난 조사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6년까지 전기차에 5천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는 자동차 기업들의 발표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돼, 다양한 전기차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브랜드·이미지를 더욱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에는 대부분의 신차 구매가 온라인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가?(시범 주행 제외)



향후 5년 내 자동차 구매를 결정할 때 소비자에게 다음 기능들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Source: KPMG Global "23rd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 XR)



확장현실(XR)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기술을 총망라하는 용어다. 사용자는 가상현실이 나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하거나 혼합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실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홀로렌즈의 경우 안경 형태로 현실 공간과 사물 정보를 파악해 3차원(3D)을 표시해 확장현실을 보여준다. 확장현실은 교육,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퀄컴, 구글과 손잡고 확장현실(XR)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 사장은 2월 1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 행사에서 "퀄컴, 구글과 차세대 XR 생태계를 구축해 모바일의 미래를 다시 한번 변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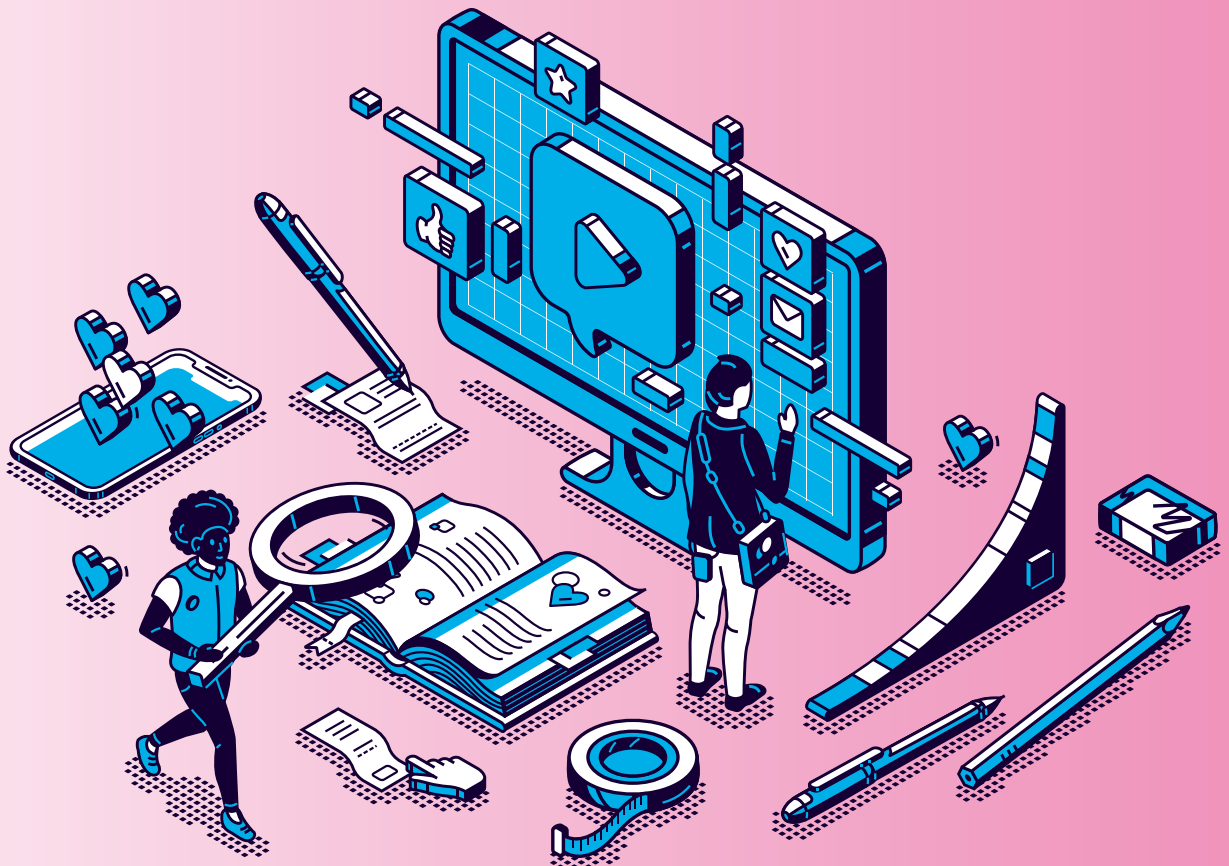
챗GPT

(ChatGPT)



오픈에이아이(OpenAI, openai.com)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챗은 채팅의 줄임말이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사용자가 대화창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대화를 함께 나누는 서비스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작곡,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업무 수행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시와는 확연히 다르다. 챗GPT가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와 같은 AI 챗봇을 장착한 검색 서비스 '빙(Bing)'을, 구글은 챗봇 '바드(Bard)'를 발표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챗GPT에 맞설 AI 기술 개발 성과를 잇달아 공개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네이버, 카카오, SKT, KT를 비롯해 엔씨소프트와 크래프톤 등 게임사들도 AI를 활용한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

Happy workplace



People First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 선물 이벤트 진행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16

삼정동호회사랑

테린이도 대환영!
올해로 10주년 맞이한 '테니스 동호회'

20

삼정인톡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삼정인의 리추얼 라이프는?

22

이동규의 두줄칼럼

AI 대혁명

24

心 Care

나에 대한 비밀스러운 애정,
내현적 자기애

26

Samjong News

'2023 KPMG 아이디어톤 개최' 외

28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 초등학교 입학 선물 이벤트 진행 일과 가정의 행복한 균형 만들기!

삼성KPMG는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초등학교 자녀 입학 선물 이벤트, 유연 근무제 등으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호에서는 삼성KPMG만의 가족친화제도 혜택을 지원받은 삼성인들의 후기를 들어본다.



삼성 KPMG

아낌없는 지원으로 아이가 다양한 활동할 수 있어!

- 최연택 Director (ICE2)

2011년 입사해, 결혼하고 이제는 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어설피지만 든든한 가정이 되려고 노력하는 아빠입니다. 회사에서는 누구보다 프로페셔널 하게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지만, 집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아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또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때마다 활동비를 법인에서 부족함 없이 딱딱 지원해주기에 더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딸에게 '아빠 회사에서 재미있는 활동 많이 하고, 맛있는 음식 많이 사 먹으라고 용돈 주고 있다고 말하니 엄청 기뻐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어, 보육비 지원이 끝나서 조금 아쉬워지만 나중에 딸아이 결혼할 때까지 무슨 혜택이 있을까 또 기다려지네요. 아이에게 주신 혜택에 감사하며, 저 역시도 법인에서 멋진 전문가로 성장해서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더욱 노력하는 아빠가 되고 싶네요!

“이안아, 매번 일찍 오겠다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했다고 혼나는 부족한 아빠지만, 학교에서 더욱 잘 적응하도록 아빠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사랑한다!”





두 아이의 워킹맘, 든든한 지원 덕분에 힘 나요!

- 김지영 과장 (Q&RM-RM)

입사 후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며, 제 인생에 가장 굵직한 중대한 일을 삼성KPMG와 함께 해왔네요. 지금은 아이 둘의 워킹맘입니다! 1년 육아 휴직이 끝나고 복직하게 되어, 첫째는 0세 반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6년 차입니다. 주변에 도움받을 곳이 없어 종일반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 특별 활동비도 그렇고, 나라에서 지원되는 원비 외에는 들어가는 돈이 꽤 많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는 아이가 둘이라 비용도 2배가 되었어요. 법인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없었다면 정말 더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법인에서 보육비를 지원받으니, 보육에 대한 '지출'이 직접적으로 줄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덕분에 남편이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독려해준답니다. 사실, 두 번의 육아휴직과 복직을 하며, 회사와 육아를 사이에 두고 많이 고민했어요. 다시 회사로 돌아온 선택을 한 만큼, 이 선택이 미래의 저와 아이들에게도 미안하지도, 또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새롭게 맡은 업무에도 더욱 전문성을 키워, 인정받도록 노력하고 싶고, 열심히 한 만큼 나중에 우리 시아, 아인이 가 열심히 회사 다니는 엄마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할 거라 생각해요.

“사랑해! 엄마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 더 집중하고, 사랑을 줄게!”



구성원들의 가족도 함께 챙기는 곳

- 이용인 과장 (파란행복)

올해 7살 딸아이와 5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우리 집은 맞벌이를 해서 어린이집을 필히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달 경비로 지출해야 하는 활동비를 법인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가계에 큰 보탬이 되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좋은 회사 다닌다고, 치켜세워주시니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지난해 스마트 오피스 회의실 명칭 자녀 이벤트를 비롯해, 매년 보육비 지원까지 회사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구성원들의 가족까지 챙기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아내 역시 회사에 오래오래 잘 다니라고 격려해줍니다. 올해로 파란행복이 설립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인이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파란행복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딸, 아들! 아빠에게 와주셔서 고맙고, 사랑해!”

CONGRATULATIONS

초등학교 자녀 입학 선물 이벤트

법인에서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

- 고동영 변호사 (Tax)

3년 전, 첫째 입학할 때보다 다양해진 선물 리스트를 보고 뭘 고를지 한참 행복한 고민을 했네요. 부모로서 필요한 물품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할 아이템들이라 법인과 인사팀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보조가방과 물병가방, 학용품을 선택했는데 정말 만족했습니다. 언제나 언니의 물품을 쓰던 둘째인지라 자신만의 입학 선물을 받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지, 배시시 웃더라고요. '이 가방은 소풍 갈 때 써야지, 물병통은 놀이터 갈 때 써야지!' 하며 엄청 행복했었어요. 물론, 옆에서 첫째는 조금 샘을 냈답니다. 하하. 초등학교 입학 선물은 법인에서 받는 가장 뜻깊고 따뜻한 선물이에요. 아이들이 입학하는 것만큼 몽클한 순간이 없는데, 이 순간을 함께 해주는 기분이 들었고, 저 역시도 법인에서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또 일도 잘 해내는 사람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둘째야, 새로운 학교라는 공간이 낯설겠지만 너만의 방법을 찾으며 행복한 학교 생활하기를 바랄게!
엄마, 아빠는 잘 해낼 거라 믿고, 언제나 네 편이란다!"*



가족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해!

- 남동혁 S. Manager (IM3)

저는 다운이와 하운이, 두 딸의 아빠입니다. 입사 후 결혼 축하 화환을 받은 때가 엇그제 같은데, 올해 첫째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선물을 받게 되었네요! 이번에 선물 리스트 중 하나만 선택하기 아쉬울 정도로 선물 구성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이가 학교에 메고 갈 가방을 선택했습니다. 딸이, 선물상자를 열고 예쁜 가방을 발견했을 때 아빠 친구가 보내준 선물로 알고, "우아, 아빠 친구가 좋은 가방 선물을 보내주셨네!" 하며 즐거워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둘째 딸과 함께 선물 받은 학교 가방을 메고, 학교 놀이를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축하해줘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결혼과 부모님 환갑 등 중요한 가족 행사 때마다 선물을 받으니, 법인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법인 모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가서 즐거운 경험 많이 하고, 지금처럼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길 바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만 0세부터 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한다. 법인에서 지원하는 보육비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별도 납부하는 부모 부담금(현장학습비, 특성화비, 차량이용비, 특별활동비 등)에 충당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의: 총무팀 김근아 대리
(geunahkim@kr.kpmg.com)

초등학교 자녀 입학 선물 이벤트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임직원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하고자 입학 선물을 전하는 프로그램. 가방, 책, 키보드 등 다양한 입학 선물 중 한 가지를 선정할 수 있다.

문의: 인사팀 안경진 대리
(kyungjinan@kr.kpmg.com)



맞춤 선물에 무한 감동!

- 박송학 Director (Deal Advisory5)

2012년 입사해, 어느새 세 아이의 아빠가 되었네요, 올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학부모라는 역할 하나를 더 얻었습니다. 이번에 법인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아 반갑고 기뻐요. 사원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준비해준 법인의 맞춤 선물에 무한 감동받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책을 좋아하여 고른 선물이 제 마음에도 꼭 들었고, 내용도 한국사와 세계사로 구성되어 오래 두고 보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아빠 회사로부터 받은 선물이 처음에는 어리둥절 했지만 이내 선물을 보고 이리저리 둘러보며 매우 마음에 들어 했어요. 얼마 전, 새로 생긴 자기 방 한켠에 잘 꽂아 두더군요. 그리고 동생들의 질투를 꽤 받았지요. 하하. 지난해 자녀 이름으로 회의실을 이름을 지은 행사처럼 자녀들이 아빠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야, 초등학교 가서도 지금처럼 해맑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 항상 건강하게 자랐으면 한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감동 이벤트!

- Ho Tsz Chun Martin S. Consultant (S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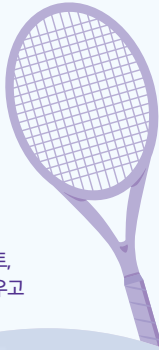
저는 현재 ESG팀에서 근무하는 홍콩에서 온 마틴 호입니다. 저는 ESG팀에서 KPMG ASPAC ESG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ESG 비즈니스 성장 지원과 더불어, 동료들에게 ESG에 관한 역량과 지식 향상을 위한 여러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삼성KPMG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자녀 입학 선물에 너무나 놀랐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ASPAC 국가의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이런 복지는 없다고 해요! 회사의 소속감을 높이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운동복을 선물 받았는데, 딸아이가 좋아하는 컬러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했답니다. 특히 새 운동복을 입고 학교 운동장을 달릴 수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선물을 준 삼성KPMG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학교에서 공부 부담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그리고 한국어, 영어 외에도 아빠와 함께 중국어를 배우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줘!”

테린이도 대환영! 올해로 10주년 맞이한 '테니스 동호회'



지난해 진행한 레슨 이벤트,
테린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레슨에 집중하고 있다



12개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삼성인들의 워라밸을 지원하는
삼정KPMG. 이번 호에서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삼정KPMG 테니스 동호회를 소개한다.

코로나19 이후, 골프만큼 주목받은 스포츠가 바로 테니스이다. 골프로 운동량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테니스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인데, 어느 조사에서는 테니스를 일정 기간 꾸준히 하면 평균 9.7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있다. 심장, 혈관, 뼈, 정신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된단다. 삼정KPMG에는 꽤나 역사가 깊은 테니스 동호회가 있다. 2014년에 창단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동호회 회원 수는 약 60명으로 다양한 본부와 직급으로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허세봉 부대표(Q&RM)에 이어 올해부터 강정구 부대표(IM4)가 회장직을 맡았으며, 새로운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총무로는 박도휘 S.Manager(경제연구원), 김재찬 Senior(IM1), 정혜인 대리(IGH)가 맡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박도휘 S.Manager를 비롯해 양세진 S.Analyst(Deal Advisory6), 송소혜 대리(B&F1)를 만나 테니스 동호회에 대해 속속히 파헤쳐본다.



2023 첫 모임을 가진
테니스 동호회!



지난해 레슨 이벤트
진행 중 단체 기념사진!



요즘 대세 스포츠!

“테니스 짜릿하고 개운해요”

양세진: 힘겨웠던 첫 기말 감사 시즌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볼까? 싶어서 요즘 대세 스포츠인 테니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하지만 몇 개월간 혼자 레슨만 받았는데, 큰 흥미가 생기지 않았죠. 그러던 중 법인에 테니스 동호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기들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테니스에 대한 매력을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친 공이 원하는 곳에 위치해 점수를 낼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확한 스트로크 자세로 제가 생각한 곳에 공을 정확히 보냈을 때의 그 짜릿함 잊을 수 없습니다.

송소혜: 저도 새로운 취미를 갖고 싶어 하게 된 운동이 테니스였어요. 친구들과 사이에서 테니스 열풍이 불더라고요! 때마침 사내 테니스 동호회 모집 소식을 알게 되어, 바로 가입했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직접 쳐보니, 왜 친구들이 테니스를 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선 활동성이 매우 큰 전신 운동이라 짧은 시간에 땀을 흠뻑 흘리게 되어 개운하더라고요! 또한, 살아 있는 볼을 라켓으로 치고, 상대방과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유대관계를 쌓을 수도 있답니다.

정혜인: 저는 요즘 들어 테니스 인기를 실감하고 있어요. 지난해 동호회에서 삼정인을 대상으로 테니스 레슨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메일 공지 5분 만에 40여 명

이 신청을 해줬어요. 뜨거운 열기에 놀랐고, 당시 16명의 삼정인이 선정되어 즐겁게 테니스를 배우고 추억을 쌓았답니다.

테린이부터 실력자까지, 다양한 동호회원들과 테니스로 친목 다져요!

김재찬: 우리 동호회는 실력자부터 테린이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보자라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에 맞춰 랠리도 가능하고, 또 배우며 테니스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호회는 눈과 비가 오는 날이 아니면 언제든지 코트를 열어 운동하도록 지원 중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10시 개포동에 위치한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테니스장에서 활동 중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양세진: 총무님께서 눈과 비가 오지 않은 날이라고 하니,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네요. 당시 영하 15도 추위에 칼바람이 뽕뽕 불어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 동호회원들과 테니스를 친 기억이 나요. 모자, 장갑, 귀마개, 내복으로 완전무장한 상태로 테니스를 쳤죠. 방한용품으로 몸도 무겁고, 공도 얼어서 잘 튀기지 않았지만 추위가 무색하게 동호회원들과 즐겁게 테니스를 치며 추위를 이겨냈어요. 하하. 무엇보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타 본부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는데, 동호회를 통해 다양한 본부, 직급의 삼정인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어 좋아요!

송소혜: 추웠을 때 이야기를 하시니, 저는 아주 더웠을 때도 생각이 나요. 퇴약별이 내리쬐는 7월, 동호회원분들과 구슬땀을 흘리며 테니스를 쳤어요. 당시 저는 초보자라 힘 조절이 되지 않아 너무 세게 쳐서 옆 구장으로 넘어가거나 공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려서 민폐를 끼쳤으나, 회원분들이 모두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고 더 잘



연간 회원권이 필요한 5성급 호텔, 반얀트리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모임! 조경래 고문, 박장호 고문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할 수 있도록 자세, 스윙 등을 상세히 알려줬어요. 덕분에 배려하며 즐겁게 즐길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동호회를 통해 다양한 분들과 교류할 수 있어 회사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정기 대회 & MT도 추진!

“새로운 취미 원한다면 테니스로”

박도휘: 요즘 테니스 인기로 코트 예약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테니스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 삼정인이라면 우리 동호회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테니스 코트도 늘 준비되어 있고, 테린이부터 고수까지, 다양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잠시 중단했던 정기 테니스 대회도 재개할 예정이고, 가까운 외곽으로 나가 테니스도 치고, 함께 식사하는 MT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 즐거운 법인 생활을 원하거나, 삶의 활력을 찾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

테니스 동호회

문의:

- ERI 박도휘 S.Manager
(총무, dohwipark@kr.kpmg.com)
- IM1 김재찬 Senior
(총무, jaechankim@kr.kpmg.com)
- IGH 정혜인 대리
(총무, hjeong9@kr.kpmg.com)

소소하지만 확실한 습관 삼성인의 리추얼 라이프는?

삼성인들의 다양한 생각과 추억을 공유하는 '삼성인톡'. 이번 호에서는 삼성인들의 리추얼 라이프를 엿보려 한다. 리추얼 라이프(Ritual Life)는 항상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을 뜻하는 Ritual과 일상을 뜻하는 Life가 합쳐진 말로, 일상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규칙적인 습관을 의미한다. 어떤 일상 속 습관을 만들고 있을지, 삼성인들의 리추얼 라이프를 탐색해본다.



하루 30분 경제신문 정독하기

저는 5년 동안 하루 30분 경제신문 정독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 고객들과 대화할 때 항상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해야 조금 더 의미 있고, 매끄럽게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에 제 상식, 지식을 확장하고 최근 경제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로 대화하고 싶어서 경제신문을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5년 정도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필드에서 고객과 어떠한 주제로 대화하더라도 막힘없이 자신감 있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업무적으로도 최신 산업 동향과 경제 동향을 반영한 가치평가 보고서와 실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보고서의 질도 많이 올라간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고객과의 대화의 질 향상, 업무 수준 향상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됐네요!

이준학 Manager (Deal Advisory4)

부모님과 소소한 대화 & 응원으로 시작하는 하루!

부모님과 소소한 대화와 응원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부모님이 함께하심에 감사하고 또 하루의 시작을 북돋아 주며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기 위해선데요, 서로의 안부와 알아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습니다!

김태균 Associate (IM4)



딸과 30분간 대화하기

저는 매일 만 5살인 딸과 하루에 30분간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언젠가 딸이 아빠와는 할 말이 없다고 해서 충격받았고, 딸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 매일 30분간 시간을 정해두고, 대화를 나누며 하루 일과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딸과 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대화도 나누고 제 일상도 돌아볼 수 있어 좋네요. **조성진 Director (Tax3)**



매일 운동하며 하루 에너지 얻기!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쪽, 출근 전 1시간씩 F45(Functional 45)라는 크로스핏 비슷한 서킷트레이닝+웨이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F45 한 타임을 비롯해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고요. 사실 2년 전에 저는 운동의 '운'자도 모르고, 극단적 식단으로만 살을 빼고 싶어 했죠. 하지만,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제 몸이 건강하게 바뀌는 것을 보았고, 체력도 좋아지는 것이 느껴져 운동을 끊을 수 없게 되었어요. 하루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직업 특성상 야근이 잦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적응했기에 아침 운동은 꼭 지킵니다! 이 덕분에 야근할 체력도 늘었어요! 하하. **김시현 Consultant (SCG)**



일기쓰며하루정리하기

저는 매일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작성합니다. 초반에는 다이어리를 이용했지만, 생각보다 수기로 글 쓰는 것이 번거로워 몇 년 전부터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이용해서 작성하면 사진이나 영상도 첨부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일기를 습관화하기에 유용했던 것 같아요. 일기는 스타트업에서 인턴 생활 중 즐거운 하루 일과를 기록하고 업무를 정리해 두면 취직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작했는데, 실제로 삼성KPMG 면접을 준비할 때도 당시 썼던 일기를 많이 참고했어요. 특히 요즘 새삼 일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요. 기억은 쉽게 휘발되지만 기록물은 언제든 꺼낼 수 있고, 다시금 읽어보면 그때 상황과 감정들이 속속히 느껴져요. 신입 컨설턴트로 삼성KPMG에 근무하며 쓴 일기를 다음에 읽어보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해지네요. **정채리 Consultant (Digital Tech)**



아침에 어제, 오늘 행복한 일 생각하기

바쁜 시즌 중인 만큼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치게 되어 웃음을 잃어가는 제 모습을 보았어요. 특히 출근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웃음을 잃지 않는 신입이 되고자 아침에 알람 듣고 일어나면서 어제, 오늘의 행복한 일을 한가지씩 떠올리는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교적 덜 힘들어졌고, 출근 준비하는 시간이 덜 버거워졌어요. **전혜빈 Associate (Tax2)**



1시간 거리는 걷자!

저는 걸어서 1시간 이내의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 주로 타는 지하철역까지 버스가 잘 다니지 않고 배차 간격도 길어요. '걸어가는 시간=버스 기다리고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아 차라리 걷는 편이 출퇴근 시간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편도 20분 거리를 걷고 있어요. 걷는 시간은 일정하다 보니, 버스가 막혀 초조한 감정 역시 느끼지 않고, 천을 따라 걷다 보니 힐링 되는 기분도 들어요. 이처럼 평소 산책을 즐겨하는 덕분에, 식사를 하고 1~2정거장 거리의 디저트 맛집을 가쁘히 걸어 먹고 싶은 디저트를 죄책감 없이 즐길 수도 있답니다. **이현경 Associate (B&F1)**



매일 최소 1쪽 이상 책 읽기

원래 책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입사 후 책 읽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1년에 책 1권도 읽지 않았다는 것을 문득 깨닫고, 작년부터 출퇴근 시간에 읽고 싶은 책을 단 1쪽이라도 매일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쪽으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책 읽는 습관을 다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루에 1시간', '하루에 30쪽'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목표를 세우면 지키기 어려워 오히려 쉽게 포기할 것 같았어요. 책을 매일 읽은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하루 중에 업무 외적으로 이런저런 생각할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면서 리프레시되어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보람 Associate (B&F3)**



하루에 한 명에게 감사 인사 & 안부 전하기

저는 하루에 한 명에게 감사 인사 혹은 안부를 전하는 루틴을 만들어 생활 중입니다. 고객사 중 한 분께서 주기적으로 제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감사 인사를 해주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저를 보며 '아나도 누군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안부를 물으며 서로 행복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돌아가며 주위 사람을 떠올리고, 안부도 묻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도 강화되고, 마케팅에도 점차 도움이 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백창현 Director (Deal Advisory5)**

“인공지능은 가능해도 인공지능에는 불가능하다
인간만이 가능한 일을 찾아라”



AI 대혁명

일전에 구글 CEO 순다 피차이(Sundar Pichai)는 인공지능(AI)을 인류의 ‘불의 발견’에 비유한 바 있다. 산업·정보화 혁명에 이어 인공지능 혁명이란 초특급 공습 경보가 울려대고 있다. 이른바 생성테크의 선도자로 급부상한 ‘Chat GPT’의 가공할 위력 때문이다.

알파고 바둑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이다. 인간만의 영역이라 믿어왔던 예술시장도 충격파로 대혼란을 맞고 있다. 이미 고난도 작곡은 물론이고 AI가 그린 추상화는 경매시장에도 진출했다. 파괴적 신기술이

여는 새로운 세상은 기존의 전문가 계층을 밑동부터 뒤흔들고 있다. 특히 학문, 산업, 기술의 칸막이가 판판이 깨져 나가는 AI 메타노믹스 시대에 ‘전공(專攻)’이란 단어는 별 의미가 없다. 2023 CES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혁명적 융합기술이 여는 새로운 미래를 외치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현장

Chat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타트업 <오픈 AI>에서 개발한 자연어처리(NLP) 대화형 인공지능이다. 그는 “구글

을 능가할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 말 영국 인디펜던트지는 “Google is done (이제 구글은 끝났다)”는 도발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넷 검색이란 말은 추억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특이점(特異點, Singularity)’을 지나 상상을 불허하는 신문명이 우리 삶 속으로 거칠게 밀어닥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사용해보면 불과 몇 초 만에 대학생 보고서는 물론이고 목사 대신 설교문을 써주고, 전문 분야 칼럼, 신문기사 심지어 3행시도 대신 써준다. 최근에는 미국 의사면허시험(USMLE)을 통과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온 실정으로 그 어렵다는 현대 물리학 논문을 줄줄 써 대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믿어온 예술계도 예외가 아니다. AI 이미지 생성기인 미국의 ‘Dall-E 2’와 ‘Midjourney’ 등 여파로 인해 국내 웹툰·게임 종사자들은 일대 충격에 휩싸였다. 그 외에도 가장 위협받는 일반 행정직을 비롯해서 작가·기자·번역가·교사·변호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던져진 질문들: ‘새로운 다름’

한편 인간은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되고 있다. 그럴수록 인간만이 가능한 대체불

가능한 일을 찾는 것이 지혜의 첩경이다. 필자는 이를 ‘3력(力), 즉 창의력·상상력·공감력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감(empathy)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세계는 인공지능이 접근 불가능한 인간만의 고유영역이다. 수많은 서양인들이 BTS 공연을 보러 노숙까지 하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로봇이 절대 가져다줄 수 없는 휴먼 공감을 거쳐 마음이라는 신비로운 상품을 구매한 것이다. 향후 인간의 ‘마음(心)’이 최고의 히트상품이 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시절 산업·정보 혁명은 인간의 손과 발, 두뇌를 대신하는 것이었으나, 도대체 이 지독한 그리움이나 외로움은 어찌할 수가 없다. 미래에 공감, 감동, 감격 등 인간의 깊은 심연의 바닥을 때리는 것들은 부르는 게 값이다.

이제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 전대미문의 새로운 디지털 대전환(DX) 세상에서 개인이나 조직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새로운 컨셉과 감동을 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 창조성과 입체적 상상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가장 핵심은 새로운 다름을 위한 ‘최초의 생각’과 ‘낯선 것들의 연결’이다. 자신만의 유니크한 생각근육과 사고의 품질을 키워 나가는 일이 그 어느 시대보다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해도 인간이 될 수 없듯이 AI나 스마트 로봇은 결코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최고급 하인을 부리는 주인 몸값은 천정부지가 될 것이다. 오랜 경험에서 발효된 안목과 지혜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로봇 사피엔스 시대를 점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로봇은 아직 신발 끈도 묶지 못한다. 사랑에 빠진 로봇을 보았는가. 인공 장미가 사랑을 얻을 순 없듯이 조화가 생화를 이길 수는 없는 일이다. “두려워 마라. 인간은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말이다.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나에 대한 비밀스러운 애정, 내현적 자기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애.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폭 빠져 비현실적일 정도로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편이다. 그에 비해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면에 자기애가 가득 찬 사람도 있다. 바로 내현적 자기애인데, 이번 호에서는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애에 대해 살펴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잘 드러나지 않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관심이 과도하게 많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의식함.
-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사소한 지적에도 수치심을 잘 느낌.
- 과도할 정도로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함.
- 창피를 당할 위험이 있거나 잘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함.
-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함.
- 위와 같은 행동이 “나는 누구에게도 상처받아서 안 되고, 거절당해서도 안 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우습게 보여서는 안 되는, 원가를 못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뿌리 깊은 생각에서 기인함.



가스라이팅 용어가 사람들 사이에 일반상식 수준으로 널리 통용되면서 덩달아 ‘나르시시스트(자아도취자, Narcissist)’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자기애가 과도한 자아도취자들은 자신의 외모, 능력, 가치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상대방에게 얻기 위해 가스라이팅이라는 방법을 핵심적으로 쓰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상대방부터 많은 것을 착취하는 자아도취자들의 가족, 동료, 친구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아 온라인상에서도 ‘자아도취자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자아도취자와의 대화법’ 등의 다양한 주제의 글과 영상들이 넘쳐난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전형적인 자아도취자들은 사회적 장면이나 대인관계에서 행동이나 말투가 두드러지는 편이라 그 존재를 알아채기 어렵진 않다. 그들은 ‘내가 최고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내뿜기 때문이다. 반면, 쉽게 잘 드러나지 않는 내현적 자기애(Covert Narcissism)도 있다. 내현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최고여야 하고, 내가 가장 인정받아야 하는 유아기적인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방향으로 공공 숨겨둔다.

병리적인 수준까진 아닐지 언정, 당연하게도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은밀한 자기애적인 소망을 품고 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나만 가장 특별하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까지 우월감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 이런 자연스러운 자기애

적인 소망들이 공공 숨겨져,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형태로 세련되게 나타난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내놓고 과시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상대방에게 찬사를 요구하지 않기에 심지어 겸손하게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겸손하기까지 한 내 모습’에 깊이 몰두되어 있는 것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적극적인 방식은 아니어도 자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다 보니 겸손하게 보이려 하지만 그 행동에 진심이 결여되어 있거나, 상대를 배려하는 듯하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인 대화를 하거나, 자신을 향한 충분한 찬사를 주지 않으면 상대를 무시하는 등의 대인관계 특이점을 보이게 된다.

드러나든 숨겨져 있든, 자기애 성향은 한편으로는 대인관계에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렇다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씨앗으로서의 자기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서 타인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백설공주 동화의 마녀에게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예쁘다’고 말해줄 거울 같은 존재로 주변 사람들을 도구화해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다. 더불어 대인관계에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서로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혜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유아기적인 자기애 환상을 품었던 시기를 지나, 가장 생산적인 성인기에는 풍요로운 자기애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느긋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 또한 존중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자기애가 자리잡을 수 있다. 현실의 나와 이상 속의 나를 구별하되, 여전히 나에 대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자기애 말이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SAMJONG NEWS

‘2023 KPMG 아이디어톤 개최’ … 연세대 YBIGTA팀 우승



지난 2월 21일~22일 양일간 열린 ‘2023 KPMG 아이디어톤 (Ideathon)’에서 YBIGTA팀(연세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KPMG 아이디어톤’은 KPMG 글로벌이 주관하는 KPMG Ideation Challenge(KIC)의 한국 지역 대회로, 올해는 ‘자언어 모델로 기업 활동에 관련된 분석 방법 또는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류 심사에 통과한 11개 팀 60명의 학생들이 모여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약 한 달간 프로그래밍 등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2월 21~22일 양일간 팀 별로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연세대학교 강세정, 김지효, 나준호, 장동현, 안준우, 박유찬 학생

로 구성된 YBIGTA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벤처 기업에 정부 지원 과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선보여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한 김박민주동팀(카이스트·이화여대)은 소비자가 작성한 온라인 리뷰에 문장 유사도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해 제품과 시장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선보였다. 3등은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활동 분석을 돕는 플랫폼을 개발한 뷰티인사이드팀(중앙대·카이스트·연세대·서울대)이 수상했다. 한편, 우승팀에는 1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준우승팀과 3등팀에는 5백만 원과 3백만 원이 차등 수여된다. 국내 결선 참가자 전원은 대회참가확인서를 제공받는다.

제4회 KPMG 아이디어톤 우승팀 미니 인터뷰

우승 'YBIGTA'팀
강세정, 김지호, 나준호, 장동현,
안준우, 박유찬 학생



벤처 기업으로 서비스 대상 범위를 좁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에 주력했다. 데이터 수집 방향과 모델링 과정 등 실제 구현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팀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했다. 'KPMG 아이디어톤'은 타 대회와 달리 프로토타입까지 구현해볼 기회까지 주어져 기존 아이디어를 수정 및 보완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회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 -강세정 학생(연세대 산업공학/응용통계학)-

준우승 '김박민주동'팀
김성준, 박한성, 서동은, 차민주 학생



이런 대회 참가가 처음이고, 팀원들끼리 온라인으로만 회의를 해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서비스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하고, 팀원들 간 역할 배분을 뚜렷하게 해 제한된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한정된 인원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려다 보니 각자가 2, 3인분의 결과물을 내 수고가 많았고, 팀원에 고마운 점이 많다. 보통 사업성, 개발 등 분야별로 대회가 열리는데 'KPMG 아이디어톤'은 아이디어부터 실행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값진 경험이 되었다. -김성준 학생(카이스트 전산학)-

준준우승 '뷰티인사이드'팀
이수민, 이금진, 김영진, 최윤정 학생



훌륭한 팀원들과 출전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었는데 수상까지 해 영광스럽다. 최근 화두인 ESG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 및 기획하고,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보며 뜻깊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많은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 내 구현해 본 것이 처음이라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학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도 관련해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수민 학생(중앙대 경영학/소프트웨어인문 융합전공)-

유수 매체 IB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M&A 회계자문사 선정



한국경제 '제14회 IB 대상' - M&A 회계자문사 수상



머니투데이 '제20회 대한민국 IB대상' - 최우수 회계자문사 수상

삼정KPMG가 국내 유수 매체 IB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M&A 회계자문사로 선정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먼저, '한국경제 제14회 IB 대상'에서 2022 M&A 회계자문상을 수상했다. 경영권 거래(사업부 및 영업양수도 포함) 발표 기준으로 총 40건, 8조5479억 원 규모의 딜을 자문했다. 완료 기준으로는 총 42건, 9조4072억 원 규모의 M&A 회계자문을 도왔다. 삼정KPMG는 기업 간 딜뿐 아니라 사모펀드(PF) 운용사의 M&A까지 두루 섭렵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머니투데이가 주최한 '제20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지난해 약 13조6,000억 원의 회계자문(완료 기준)을 수행하며 최우수 회계자문사로 선정됐다. 삼정KPMG는 네이버 포쉬마크 인수,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엘에스의 엘에스니꼬동제련 지분 인수 등 지난해 국내 M&A 시장 랜드마크 딜에 회계자문사로 모두 참여했다. 삼정KPMG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대형 M&A 거래에서 회계자문 역량을 입증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정KPMG-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경영컨설팅 협력

삼정KPMG가 하나은행과 지난 2월 23일 하나금융그룹의 VVIP 점포인 클럽원한남에서 패밀리오피스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를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패밀리오피스 기업에 대한 기업 경영 컨설팅, 기업 가치 평가, M&A 및 가업승계 관련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은 고객 중심의 특화된 산업별 전문 M&A팀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서비스별 전문 인력을 다수 보유함으로써 기업 M&A 자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가업승계, 해외 진출, 지분매각 등의 이슈와 마주하고 있는 패밀리오피스 기업들에 기업매각 및 인수, 가업승계 후 경영 전략까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정KPMG 재무 자문부문 구승희 대표는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을 통해 국내 패밀리오피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 및 가업승계, M&A 등 기업 경영의 고민들에 해답을 제시하고, 고객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올리는 성장 전략 파트너로서 폭넓은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웨비나 개최



삼정KPMG는 지난 2월 16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등에 역점을 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제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나누어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웨비나는 ‘삼정KPMG 아카데미’(<http://kpmgacademy.co.kr>)를 통해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성금 5만 달러 지원

삼정KPMG가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구호를 위해 5만 달러(6,300만 원)의 성금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기부했다. 구호 성금은 현지 긴급 상황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생필품 공급, 보건서비스 제공, 구호 물자 지원 및 삶터 복구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KPMG 글로벌에서는 전 세계 143개국 265,000명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네이션(donation) 사이트를 개설했다. 삼정KPMG 임직원들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튀르키예 및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후원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사랑나눔] 자립준비청소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쿠킹클래스 ‘꿈콧’



삼정KPMG가 청소년그루터기재단과 협력해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자립준비청소년 약 40명을 돕는다. 자립준비청소년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인 ‘꿈콧’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식재료 보관 및 재료손질 등 1인가구 맞춤형 요리교육으로 구성되며, 조리도구 세트 및 쿠킹키트도 지급된다.



NK BIZ FORUM

NK비즈포럼 제8기 모집

‘NK비즈포럼’에 초대합니다!

‘NK비즈포럼’은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삼성KPMG와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2019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남북경협 최고경영자과정입니다.

삼성KPMG·중앙일보가 북한·경제 전문가는 물론 대북사업을 경험한 기업인, 북한 고위층 출신 인사를 초청하여 북한의 현실 정책과 시장,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해 NK비즈포럼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023년 4월 하순 개강 예정
매주 목요일 저녁 7~10시

장소

더 플라자호텔 or 롯데호텔서울

선발 대상

기업 최고경영자 및 임원, 주요 기관·단체장
대북 진출, 남북경협 등 북한·통일 이슈에 관심 있는 분



* NK비즈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문의

nkbizforum.com

	삼성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화	02-2112-2743
이메일	seungpyohong@kr.kpmg.com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